

이주의 책 세 번째.



노력이 항상 좋은 결실을 맺지는 못하더라도,  
그 결과가 당신의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,  
삶의 용기란, 그럼에도 불구하고

스스로의 뒤통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.

TO. 지나가버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을  
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